

# ‘증권 전산 시대의 막을 열다’

## 증권전산

안태백

### 1. 개요

우리나라에서 증권업무의 전산화는 공식적으로 1973년부터 시작되었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 3년에 걸쳐 KIST와 한국증권거래소는 형식상으로 3개의 연구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상으로는 한국증권거래업무의 전산화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3년에 걸쳐 수행한 것이다. 최초의 연구계약이 1973년 9월 1일로 되어 있지만 연구는 1973년 초부터 착수되었다. 1975년 이후에도 한국증권거래소에 대한 KIST의 지원은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서, 증권 대체업무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속해 있을 때부터 KIST에 의해 전산화가 추진되었고, 1993년에는 정영근 실장팀이 증권거래소의 감리업무를 전산화하고 있으니 KIST와 한국증권거래소의 인연은 참으로 길고 질긴 것 같다.

오늘날 증권전산업무는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해져서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증권전산업무의 개발이 KIST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 2. 추진동기와 배경

197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에 컴퓨터의 보급이 미미하였고 관계나 재계의 사람들도 컴퓨터를 별로 알지 못하였고 컴퓨터에 외경심을 가졌고 컴퓨터에 의한 변화를 두려워했다. 이런 상태였으므로 자진해서 전산개발을 의뢰하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체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산화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조직체의 업무를 학습하고 전산화 방안을 연구한 후, 그 조직체의 간부를 만나 전산화를 추진할 것을 설득하는 PD전략을 구상하였다.

1972년 가을에 성기수 박사에게 ‘물가’나 ‘증권’에 대하여 연구한 후,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물가를 분석하고 연구하면 기관에 잡혀 갈 염려가 있으니 물가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고, 증권연구는 아주 좋으니 해보라는 대답을 얻어 증권연구를 시작하였다.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으며 증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런 내 움직임이 연구소 안에 조금씩 알려지자 ‘KIST에서 그런 연구를 하면 되겠느냐’는 의견들이 생겼다. 오늘날에도 증권이라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시에는 그 정도가 심한 편이었으니 그런 의견에 이해가 갔다. 성 박사는 그런 의견을 일축하고, 도리어 연구를 독려해 주셨다.

나는 KIST에서 한상준 박사(전 KIST 소장) 등 많은 상사를 모셔 보았지만 성 박사는 다른 분들과는 상이한 독특한 캐릭터를 지닌 분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캐릭터에 반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성 박사 밑에서 일하기를 원했었는데, 한상준 박사는 나를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드디어 나를 성 박사에게 보내면서 한 박사는 “성 박사는 백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천재이니 잘 모시게”라고 당부의 말씀을 했다.

성 박사는 파격적인 인물이었다. 피부가 유난히 희고,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인 인상은 연약해 보이지만, 통이 크고 스케일이 원대했다. 그리고 뱃장이 아주 두둑한 분이었다. 그래서 KIST 소장 등 최고 책임자들과 정책에 차이가 나면 소신을 굽히는 경우가 없었다. CYBER를 도입하자고 성 박사가 제안했을 때, KIST의 간부들은 그렇게 큰 컴퓨터를 들여와 어디에다 쓸거냐고 대경실색을 했다. 그러나 CYBER는 도입, 가동 후 2, 3년이 지나자 용량이 부족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몇 차례 성 박사를 불러 과학기술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과학기술처 장관이 몇몇 장관과 기라성 같은 인사들을 모시고 성 박사의 브리핑을 듣는 자리를 KIST영빈관에 마련한 적이 있었다. 성 박사는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얘기해 나갔다. 잘 안들리니 큰소리로 말할 것을 과기처 장관이 요구했다. 그러나 성 박사는 전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발표를 계속했고 청중들은 알아듣기 위해 귀죽은 듯이 조용히 해야만 했다. 그 뒤에는 크게 말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

성 박사는 아랫사람들을 들들 볶는 법이 없었고 자유스럽게 연구하게끔 놓아 두었다. 그렇다고 자유방임은 아니었다. 서로 경쟁하게 했고 연구실적이 높은 팀은 더 많은 인원, 더 넓은 공간, 더 많은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었다.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관리자 임무의 기본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랑이 될 수 없다. 가치있는 것은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했는가에 있다. 우리는 성 박사의 관리 스타일 때문에 자유스럽고 생산적인 환경 속에서 비교적 만족스럽게 연구를 하였지만 KIST의 간부들과 행정부서에서는 관리부재 내지는 무질서로 인식하면서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이런 의구심 속에서도 성 박사의 전자계산실은 날로 번창해 나갔다.

성 박사의 신임 속에서 증권연구는 착실히 진행되었다. 1972년 가을 어느 날 나는 사전 약속도 없이 불쑥 명동에 있는 한국증권거래소를 찾아갔다.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큰 책상에 앉아 있는 분에게 찾아온 용건을 이야기했다. 증권거래소 업무를 전산화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KIST가 적극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증권전산에 관한 외국자료를 제공했는데, 첫 반응이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분이 서울상대를 나온 박용희 과장(전 부국증권 전무)이었다. 박 과장은 상부에 잘 보고할테니 다시 방문해달라고 했다. 다시 방문했을 때, 박과장은 김용갑 거래소 이사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번에 내가 주고 간 영문자료를 펴보이는데, 군데군데 영어단어의 뜻을 한글로 적어 놓았다. 그간 자료를 연구한 흔적이었다. 일면식(一面識)도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 일이 그토록 빨리 성사되기란 흔치 않은 일이다.

양 기관이 합의하자 작업은 그 해 말부터 곧 바로 착수되었다. 계약은 훨씬 늦은 1973년 9월에 체결되었으니 이 사업이 형식을 떠나 KIST가 파격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3년 동안 작업을 하였더니 중요한 업무는 대강 전산처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매매체결의 전산화가 그것이다. 컴퓨터가 매매를 체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전산처리를 시행하자고 제안하였지만, 보수적인 증권거래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회적인 작전을 쓰기로 했다. KDI를 설득해 보기로 했다. KDI에 우수한 경제학자들을 모아 놓고 성 박사가 직접 매매체결의 전산처리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경제학자들의 이해를 구하여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우리의 목표를 관철하려던 계획은 경제학자들의 무덤덤한 반응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우리는 너무 앞서 가고 있었다.

20년이 지난 오늘날 매매체결의 전산처리는 이미 시행중이고,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가 증권전산 업무를 거의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증권시장은 그 규모가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가 되었고 따라서 증권전산시장도 하나의 기관이 독점하기에는 너무 방대해졌다. 한국증권전산(주)과 대형 증권회사가 증권전산의 마켓셰어를 놓고 결말이 나지 않는 전쟁을 한 지 벌써 오래되었다. 증권전산은 국가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생산할 뿐 아니라 소요되는 비용도 막대해서 업계의 밥그릇 싸움도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증권전산업무가 성 박사의 선견지명과 결단에 힘입어 개발되었고, 이로써 한국에서 증권전산의 시대가 적어도 2,3년은 앞당겨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주요 개발 내용 및 사업

#### 1) 개발된 주요 프로그램

당일거래 매매원장, 당일거래 청구서, 당일거래 수도대금수불표, 보통거래 매매원장, 보통거래 청구서, 보통거래 수도대금수불표, 제요금징수표, 신용거래 상황집계표, 수도상대 지정서, 수도대금 명세서, 수도증권 수불표, 매매량집계 일람표, 매매증거금거래원별 상황표.

#### 2) 업무개선

EDPS화의 전제로써 상장 전 종목에 걸쳐 POST매매화를 추진하였으며 수도결제 방법도

당일결제거래를 폐지하여 컴퓨터에 의하여 수도상대를 지정, 수도결제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였다.

### 3) TTY 도입

75년 온라인 시스템화를 위하여 74년에 한국증권거래소에 M-38 TTY 3대 및 734 LSBT 1대가 도입되었으며 각 증권회사와 관련기관에 M-38 TTY 1대씩 총 35대가 도입·설치되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 증권업계에 도입된 최초의 하드웨어이다.